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돼서”

these women supposed to help keep the safety of the city or be the touristic attractions in it?



레바논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 경찰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레바논 브루마나시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의 여경들이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POLICE(경찰)’라는 영어 단어가 적힌 반소매 상의를 입고 빨강 모자도 착용했다. 엄숙한 느낌을 주는 일반적인 여경 제복과 많이 다르다.

여경들의 파격적인 복장은 피에르 아흐카르 브루마나 시장이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추진한 조치다.

아흐카르 시장은 “지중해 관광객의 99%는 짧은 바지를 입는다.”며 “서양 세계의 레바논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서양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바논에서는 여경들의 복장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레바논 시민은 “모든 사람이 반바지를 입고 그것(여경들의 반바지)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다. 더운 여름에는 괜찮다.”며 여경들의 반바지 착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위해 젊은 여성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성은 트위터에서 남성 경찰들의 복장과 여경들의 반바지를 비교하며 “여경들이 성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30년 간 무인도 생활한 할아버지의 위기

21세기판 ‘로빈슨 크루소’ 혹은 ‘나체 은둔자’로 유명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작은 무인도인 소토바나리섬에서 30년 가까이 홀로 생활한 일본인 할아버지의 근황을 전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마사후미 나가사키(사진). 올해로 82세가 된 나가사키 할아버지가 현지 어부도 찾지 않는 무인도에 정착한 것은 지난 1989년이다.

섬으로 오기 전까지 도시에서의 그의 직업은 다양했다. 한때는 사진작가로, 또 한때는 술집 웨이터로도 일하며 일본 전역을 돌아다닌 그는 40세 되던 해 결혼하며 정착하는 듯 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결국 처자식을 두고 50대에 가출한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곳 소토바나리섬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다.

물도, 먹을 것도 딱히 없는 무인도에 정착한 그는 30년을 살면서 완전한 ‘자연인’이 됐다. 입고있던 모든 것을 훌훌 벗어던졌고 바닷물로 양치를 하고 나뭇잎을 휴지로 썼다. 다만 정기적으로 물으로 나가 식료품을 조달할 때만 옷을 입고 문명인이 된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지만 인생의 행복을 찾았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4월경이다. 할아버지의 건



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것. 이에 관계 당국은 할아버지가 섬에서 홀로 객사할 것을 우려해 병원이 있는 물으로 강제도로 이동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케레조는 “할아버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면서 “여생을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1시간 동안 네 잎 클로버 166개 찾은 소녀

미국의 한 소녀가 ‘네 잎 클로버 찾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27일, 미국 매체 인사이드 에디션 등은 버지니아주의 스폿실 베이니아에 사는 10살 소녀 케이티 보카(사진)가 1시간 동안 166개의 네 잎 클로버를 찾아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보카는 부모님의 권유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했다. 기네스 세계 기록 측은 그동안 네 잎 클로버 찾기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네 잎 클로버를 25개 이상 찾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보카는 도전 당일 3명의 심사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 마당에서 네 잎 클로



버 찾기에 도전했다.

보카가 네 잎 클로버를 찾아 봉투에 담으면 심사위원들은 이를 보고 네 잎 인지 확인 후, 번호가 표시된 보드 판에 순서대로 붙여 개수를 확인했다.

보카는 단 7분 만에 네 잎 클로버 25개를 찾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166개의 네 잎 클로버를 찾으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보카의 부모는 “딸에게 네 잎 클로버를 잘 찾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쉽게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